

## 성경의 맥잡기 – Chapter 6. 포로 / 포로귀환 시대

D.P.Joshep 2010-06-07 22:53:37

조회 181 스크랩 0

바벨론 제국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훼파되고, 민족은 완전히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국으로 끌려가 70년간 노예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이란 기준으로는 1차포로부터 1차기간이 거의 70년이기도 하며, 솔로몬의 성전이 훼파되고 나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건축된 기간이 70년이기도 함으로서 노예생활 기간을 70년으로 말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선지자 중에는 다니엘이나 에스겔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 활동하였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가서도 정치적으로 성공하면서 4명의 왕을 섬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같은 경우도 바벨론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출이집트 시절에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을 안 듣고 다시 우상숭배를 하자 이번에는 그의 두 배격인 70년간 그들을 다시 훈련시키십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들은 우상숭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형식상으로만 믿게 되는 부작용이 나오게 되었지만, 더 이상의 우상숭배는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오며, 그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도 망하게 되고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며,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라 불리는 나라가 그 당시의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는 새로운 정책을 쓰는 데,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되 세금 등으로 제국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포함한 42,360명이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것이 에스라 성서에 나옵니다. 에스라의 주된 내용은 성전재건과 부흥운동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회복입니다. 1장에서는 1차 포로 귀환이 나오고 2장에서는 귀환자들의 명단이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3장에 비로서 성전의 기초 건축을 합니다. 4장에서는 성전건축에 대한 방해 때문에 15년간 건축이 중단됩니다. 이 시기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정이 식자 학개나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권고하며 충고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는 5장에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며, 6장에서 성전 봉헌식 및 유월절을 보낸다. 7장에서는 에스라를 포함한 사람들이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8장에서 2차 포로 귀환자들의 포로 귀환 여정이 적혀있고, 9장에서는 에스라의 비탄 및 회개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이스라엘의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귀환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재건과 언약갱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정치적이며 지리적인 회복을 일으켰다. 1장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며 성벽 재건을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자신의 왕인 아닥스사다 왕께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나 쉽게 성벽이 재건한 것은 아닙니다. 4장에서는 이방 민족들의 방해가 그리고 5장에서는 내부에서의 문제가 성벽 재건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6장에서 성벽을 완성하였습니다. 7장에서는 정치적인 재건을 도모하였으며 8장부터 13장에서는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의 부흥 운동을 하였습니다. 페르시아 나라에서 모든 노예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여서 모든 노예가 본국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더 발달한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 사건입니다. 에스라 6장의 성전 봉헌과 유월절 이후 7장사이에서의 2차 포로 귀환 까지는 약간의 시간 간극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일어난 것이 ‘에스더’서의 사건입니다. 에스더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페르시아의 남아 있는 백성들이 ‘하만’이란 사람을 통해서 멸족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르드개와 그의 조카이며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 사람들을 살리는 내용입니다.

이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말라기’라는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더 이상의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형식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라기’서는 가장 솔직하고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질문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대답만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질세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다고 그러세요?’ 등의 반문으로 하나님의 말문을 막히게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400년간 침묵하시게 되는 안타까운 구약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